

인테리어 디자이너 카롤린 르그랑

은유가 넘치는 집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카롤린 르그랑 Caroline Legrand의 런던 하우스는 심플하지만 심심하지 않다. 런던 특유의 층별로 나는 작은 규모의 방에는 현대적이면서도 복고적인 분위기가 동시에 풍기는 물건이 구석구석 가득하다. 가장 기본 컬러만으로도 쾌락이 넘치는 화려한 집이 될 수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는 꾸민다는 의도적 행위를 알아챌 수 없는, 비유와 은유가 넘치는 집에서 살고 있다. 글 계안나 사진 아콜렉티브Acollective / 참고 carolinelegranddesign.com



왼쪽 추상표현주의 화가 필리프 파스토르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벨기에 출신 인테리어 디자이너 카롤린 르그랑. 6개국 언어에 능통하고 세계 각국에서 생활한 경험으로 만화경 같은 세상 이야기를 집 안에 담을 줄 아는 재능 넘치는 디자이너다. 오른쪽 넓은 소파 앞에 놓인 두 쌍의 체어는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가구를 대표하는 미국 출신 디자이너 밀로 보먼의 작품으로 로버트 알렌 패브릭 제품으로 업홀스터리한 것. 소파와 상들리에에는 모두 탈리스만, 대리석 테이블은 니힐 보니, 러그는 스타크 카펫 제품. 벽 전체를 감싼 그림은 안젤로 오테로, 여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은 메릴린 민터 작품.





2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집은 곧 그들의 디자인을 이해하는 모델하우스로 여긴다. 따라서 그곳을 방문하면 그들의 장기가 십분 발휘된 집은 어떤 스타일인지 축수를 곤두세우고 문고리와 창문 틀까지 꼼꼼히 관찰한다. 그러나 카롤린 르그랑이 살고 있는 런던 하우스는 한 단어로 규정하기 힘들다. 머릿속에 스타일 용어들이 스쳐가지만 딱히 내세울 것이 없다. 대리석 바닥, 화이트 컬러의 벽과 천장이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드문드문 눈에 띄는 빈티지 가구와 컨템퍼러리 아트 작품은 시간대를 갑자기 뒤흔든다. 특별히 꾸미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곳은 기하학 패턴 벽지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곳은 천장부터 벽까지 골드 컬러를 칠했다. 가장 단순한 공식을 지닌 컬러인 화이트, 베이지, 크림, 골드가 공간마다 다양한 톤으로 미묘하게 변주되며 여러 시대의 물건과 충돌한다.

종잡을 수 없는 공간

“우리는 흑백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컬러, 향기, 질감 등 모든 것이 살아 넘치는 만화경 같은 세상에서 살죠. 집은 그런 다양한 세상 이야기를 품고 있어야 해요.” 그가 시도한 것은 방마다 다양한 스타일을 풀어놓는 일차원적 접근이 아니다. 그는 어떤 스타일로도 해석하지 못하는 종잡을 수 없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 식. 예를 들어 단순한 컬러를 바탕으로 질감이 서로 다른 수십 가지 재료를 사용하거나, 형태는 비슷하지만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얻은 물건을 배치하는, 매우 섬세하고 비밀스러운 방식 말이다. 글에 비유하자면 비유와 은유가 넘치는 문장을 쓰는 것이랄까. “오랫동안 패션업계에서 일했기에 ‘디테일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점, 선, 면이 공간의 미감을 완성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기 쉬운 바닥·천장·벽 마감재를 고르고 배열하는 데 신경을 썼고, 각 공간의 베이스에 맞춰 가구를 신중하게 골랐죠.” 좋은 예가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린 거실이다. 격자무늬 블랙 우드 바닥은 천장 무늬와 미묘하게 연결되고, 그 문

양은 벽에 걸린 사각형 캔버스로 이어진다. 소파, 의자, 러그 모두 크림 컬러지만 질감은 서로 다르다. 보송보송, 보들보들, 까칠까칠... 눈에 보이는 물건마다 촉감을 표현하는 수많은 의태어가 쏟아져 나온다. 1980년대 빈티지 디자인 소파는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며 지친 몸을 편안히 감싸줄 것처럼 보인다. 포인트 컬러인 골드 컬러는 전기 소켓과 버튼까지 궁합을 맞췄다. “직관적 방식으로 색과 스타일을 드러내면 쉽게 질릴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런 단순한 데코레이션은 어느 디자이너나 쉽게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한 수준으로 작은 차이를 만들고,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꾸밈을 더하죠. 사람들은 ‘도대체 이 스타일은 무엇일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요. 오직 그곳에 사는 사람만이 낮과 밤, 여러 해의 계절을 거치면서 그 차이를 서서히 깨닫게 되지요.”

모든 요소 간의 작은 차이를 자유롭게 주물럭거리는 그의 실력은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는 원래 벨기에 출신이다. 열일곱 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다녔고, 이후 네덜란드로 이주했다. 평소에도 여행을 좋아해 수시로 다른 나라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언어를 배웠다. 결혼 이후 런던에 정착해 패션 핸드백 브랜드 안야 힌드마치 Anya Hindmarch 디자인팀에서 일을 시작했다. 시크한 외모는 물론 6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달변가. 그녀는 금세 영국 사교계에서 소문난 인물이 되었다. “패션계에서 일하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죠. 총괄 디자인팀을 이끌었는데,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승진도 코앞이었죠. 하지만 2008년 이혼을 결심하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삶도 일도 홀로서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실 런던 하우스는 카롤린 르그랑 디자인 회사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연구실 삼아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시험했다. 여러 나라에 살면서 터득한 다채로운 경험, 패션업계에서 쌓은 노하우, 여러 분야의 사람에게 얻은 영감과 재치. 그는 수차례 레노베이션을 거치며 복잡한 구조 변경이나 화려한 가

위 양머리의 거대한 뿔이 상판을 받치고 있는 독특한 유리 테이블은 1970년대 빈티지 제품으로 탈리스만에서 구입했다. 다이닝 চে어는 미국 가구 디자이너 찰리 홀리스 존스의 작품으로 업홀스터리한 것. 천장 조명은 베크 브리튼의 작품으로 아트 오브제처럼 느껴진다. 아래 영국 아티스트 트레이시 에민의 네온 작품 'Be Brave'가 불을 밝히고 있는 침실. 벽지는 콜렉션 제품. 빈티지 조명은 아티스트 폴 에번스의 손길을 더해 만든 것이다.



구가 없어도 다양한 표정을 지닌 집을 완성했다. 그의 실험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스페인 이비사와 미국 LA에 집을 구입해 런던 하우스처럼 화이트·베이지·크림·골드 컬러를 베이스로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집을 완성한 것. 물론 중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다.

과거의 가구와 미래의 아트

편안한 느낌 때문에 자주 찾는 화이트, 베이지, 골드 컬러. 런던 하우스에서 이 고요한 컬러가 제 역할을 발휘하는 순간은 밤이다. 짙은 어둠과 옐로 컬러 조명이 물감처럼 섞이며 집 안에 차분한 공기를 입힌다. 자연광이 쏟아지는 아침이면 새하얀 벽은 신기하리만큼 투명해진다. 곳곳에 숨겨놓은 골드 컬러는 컬러사진처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낮에는 두드러진 생김새의 컬러 빈티지 가구와 컨템퍼러리 아트 작품이 집 안을 지배한다. 가구는 모두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로 통일했다.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이란 20세기의 가운데, 즉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디자인한 가구를 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레이 임스 부부, 한스 웨그너, 핀 울, 아르네 야콥센 등 세계적 가구 디자이너의 대표작이 이 시기에 탄생했다. “저는 1970년 디자인을 가장 좋아해요. 럭셔리한 디자인, 대담한 건축물, 화려한 색채와 문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던 시기죠. 그에 비해 1980년대 디자인은 딱딱하고 전형화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필요할 때 1970년대 소품은 절묘한 역할을 해요. 훌륭한 디자인이 보편적 공간과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정열적 스파크를 감지할 수 있죠.”

그가 가구를 구입하는 곳은 딜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1stdibs(www.1stdibs.com)나 프랑스 파리의 뤼스 시장(Marché aux Puces)이다. 빈티지 가구는 하나 하나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고, 소유자에 따라 또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져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진다. 그는 복제품이나 공산품 대신 오리지널 작품을 살 것을 강조한다. 진품에는 디자이너의 상냥한 마음이 깃들여 있고, 누군가가 소유하는 동안 스며든 편안한 온기가 머물러 있다는 것.



“이 시대 가구의 특징은 다목적성이에요. 선반만 봐도 임의로 높이와 길이를 선택할 수 있고, 테이블 또한 커피 테이블이나 침대 선반으로 쓸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요즘 우리는 가구보다 더 많은 개수의 전자 제품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 물건들이 당신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나요?” 우리는 물건을 고를 때 벽지 컬러나 바닥재 같은 공간 스타일을 우선순위로 떠올린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생김새부터 챙기는 식이다. 그는 무질서해 보인다고 해도 본인의 삶에 영감과 자극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주변을 채울 것을 조언한다. 그에겐 아트 작품이 그렇다. 실비 플뢰리, 로리 시몬스 등의 팝아트 작품이 차분한 공간에 웃음을 흘린다. “가구가 당신의 현재를 보여준다면, 아트 작품은 당신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 철학, 감정을 지

왼쪽 패턴 벽지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한다. 빈티지 콘솔과 주름 장식의 푸프는 니힐 노비, 태양 모양의 오브제와 유리 선반은 모두 빈티지 제품. 위 그는 화려하고 대담한 디자인이 넘치는 1970년대 디자인 물건을 특히 좋아한다. 거실 코너에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여러 오브제를 배치해두었다.



니고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죠. 아트 작품이야말로 가장 함축적인 제 삶의 취향을 담고 있어요.” 그는 삶의 굴곡진 순간마다 작품을 구입했다. 즐겁고 유쾌하면 그 감정대로, 슬프고 외로우면 그때의 마음대로.

들숨과 날숨의 통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생각보다 심한 감정 노동을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구에 시달려야 하고, 마감 일자에 맞추기 위해 업자와 재촉해야 한다. 특히 그의 클라이언트는 전 세계 곳곳에 있어 미팅을 위해, 그들의 까다로운 취향에 맞는 물건을 찾기 위해 장거리 비행도 불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집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해주는 곳이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침실에서 30분간 명상을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명상을 시작

했고, 쿤달리니 요가 자격증도 뒀다. 명상과 요가에 대한 다양한 경험 덕분에 그는 최근 웰니스 센터를 꾸미는 프로젝트도 맡았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태도라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플랜 B를 함께 제시한다. 유행하는 스타일은 쏙 빼고 벽과 바닥, 창문, 천장을 강조한 집. 사는 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도록 들숨과 날숨의 통로를 만든 집. “2008년 일을 시작했으니 10년이 넘었네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집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집 안의 불필요한 요소를 비우고 기본 바탕을 섬세하게 다지는 일을 하죠. 스타일이란 단어를 말끔히 비우고 여유라는 단어로 가득 채운 집은 사는 이의 모습에 따라 자연스레 변해갑니다.” ☺

왼쪽 공간 전체를 골드 컬러로 물들인 방은 호기심 넘치는 물건으로 채운 분더룸에 같다. 디자인을 하거나 혼자 집중하고 싶을 때 이곳을 찾는다. **위**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스카이 블루 컬러로 깔끔하게 꾸민 욕실. 벽에 건 미술 작품 또한 욕실에서 느끼는 컬러, 질감, 형태 등과 연결되는 추상표현주의 작품으로 섬세하게 골랐다.